



LIBERABBIT

MBA 합격 준비 A to Z

Stanford GSB & 글로벌 임원서치펌 출신
코치가 전하는 인사이드 가이드

AIGAC 협회 멤버로써 올해 세계 톱스쿨 입학사정관들과
직접 교류하며 얻은 최신 합격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.

목차

1 합격을 가르는 심사 기준의 세계

입학사정관이 내 원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, 4단계 심사 과정

2 나랑 잘 맞는 학교 선택법

'Fit'이 중요한 이유와 내게 맞는 MBA 프로그램을 찾는 현명한 선택 전략

3 10주 완성 전략 플랜

막막했던 준비를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주차별 로드맵과 실전 꿀팁

4 2025-2026 입시 트렌드

요즘 Top School들이 주목하는 키워드와 3가지 핵심 흐름

5 AI,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

입학사정관 관점에서 본 AI 활용 전략과 주의사항

6 자주 받는 질문(FAQ)

MBA 입시 준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7가지 핵심 질문과 해답

7 Liberabbit 소개

입시 그 너머까지 함께하는 밀착 코칭, 무료 30분 전략 상담 안내

내 원서, 입학사정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?



LIBERABBIT

합격을 가르는 심사 기준

1

Pre-Screening (주니어 스태프)

학부/직장/국가 등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확인 GMAT/GRE, GPA 등
수치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

→ YES/NO로 빠르게 필터링

2

Holistic Review (시니어 AdCom)

이력서, 에세이, 학문적 준비도, 학교 Fit, 추천서, 관심도 등 종합 검토

→ YES/MAYBE/CASE (보류)

3

Committee Review (전체 평가)

그룹 회의로 다방면 지원자 분석 후 심층 토론 진행

Holistic Risk-Adjusted Ranking: 종합적 강점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
실제로는 카테고리 별 '내부 점수화 시스템'과 병행평가(1~5점 척도)

4

Interview & Final Decision

많은 학교들의 인터뷰 초대는 "1단계 평가 허들 통과"의 신호

인터뷰 이후 전체 지원서 재검토

최종 결정: 합격/웨이팅/불합격

Former HBS Admissions Officer 합격 팁

"성공적 지원 원서의 핵심은 수많은 디테일이 아니라,
읽은 뒤 머릿속에 남는 **personal brand** 한 문장이다."



나랑 잘 맞는 학교 선택법

왜 FIT이 중요한가?

학교는 단지 '좋은 학생'이 아니라, '우리과 잘 맞는 학생'을 찾습니다.
이는 Yield 관리(합격 후 등록 가능성)와도 직결됩니다.

"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진심일까?"

"우리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, 성장할 수 있을까?"

"이 지원자는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?"

FIT을 판단하는 기준 예시들

① 커리큘럼 & 학습 방식

Case 토론 중심: HBS, Darden

Action & Lab 중심: Ross, Sloan

팀워크 집중형: Kellogg

실습형 혁신 인큐베이팅: GSB, Haas

② 캠퍼스 문화 & 규모

친밀한 로컬중심 커뮤니티: Tuck, Kellogg

도시형 / 비캠퍼스: CBS(뉴욕)

큰 Campus 스포츠 중심 응집: Duke, Ross

③ 주요 네트워크 및 산업 방향성

금융: HBS, Wharton

미디어·럭셔리: CBS, INSEAD

헬스케어: Duke, Wharton

테크·스타트업: Stanford, Haas

사회적 임팩트: Yale, Haas

컨설팅: Kellogg, Booth

FIT을 증명하는 방법

직접 경험하고 조사하기

- 학교 웹사이트, Class Profile 분석
- 재학생과의 커피챗, 질문 리스트 준비
- 학교 웨비나, Admissions Q&A 참여
- SNS로 캠퍼스 문화 간접 체험
- 가능하면 직접 방문! Virtual Tour 활용

Essay에 담는 법

- 교수진/클럽/센터 구체적 언급
- 가치관과 학교 문화의 적합성 강조
- 동문/재학생 대화에서 얻은 인사이트
- 학교별 맞춤형 메시지 작성
- "왜 이 학교인가"에 대한 진정성



10주 완성 전략 플랜

JUL

Week 1-2

방향 잡기 & 자료 수집

- ✓ 학교들 이메일 구독 및 웹사이트 탐색, Infosession 참석
- ✓ 시험 마무리 및 일정 확정
- ✓ 자신의 강점/약점 정리 + 목표학교 초기 리스트업
- ✓ Resume 1차 드래프트
- ✓ Goals 정리: Why MBA / Why Now / Long-term vision

Week 3-4

학교 선택 + 1순위 집중

- ✓ Top choice 학교 확정 후 해당 학교 연결 및 coffee chat 시도
- ✓ 1-2순위 학교 essay 질문 해석 및 아이디어 3-5개 브레인스토밍
- ✓ LOR 작성자 접촉 및 상세 커뮤니케이션 시작

AUG

Week 5-6

Essay 집필 & 인터뷰 리서치

- ✓ Recommender 자료 정리 (bullet points + metrics)
- ✓ LinkedIn 활용 정보 탐색, 동문 인터뷰 기록 확인
- ✓ 동문 및 현 재학생 coffee chat/인터뷰를 통한 인사이트 확보
- ✓ 1-2순위 학교 essay draft 완성

Week 7-8

차순위 학교들 Essay 작업

- ✓ 각 학교당 테마 조정, 중복 줄이기
- ✓ 한 학교씩 작성 완료. 각기 다른 학교 style에 맞춘 tone 조정
- ✓ Essay 단어 수, 포맷 맞추기
- ✓ Essay review 및 어조 일관성 점검

SEP

Week 9-10

마무리 & 제출

- ✓ 최종 Resume polish 및 추천인 상황 재확인
- ✓ 에세이 전체 흐름 검토 & 추천서와 조화 점검
- ✓ 서류 누락/오타 체크, 온라인 시스템 입력, 비디오 에세이 완료
- ✓ 최종 리뷰 후 제출 및 인터뷰 대비 준비 시작

Quick Tips & Cautions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✓ 한 학교씩 집중 (Boil the ocean 금지) | ✗ 먼저 방향 설정 없이 Essay 쓰지 말 것 |
| ✓ Essay는 전략문서, 일반자기소개서 아님 | ✗ 여러 학교 Essay를 동시에 쓰지 말 것 |
| ✓ 추천인들과 7주차 이전 커뮤니케이션 완료 | ✗ 학교 깊이 탐색 없이 Why Essay 쓰지 말 것 |
| ✓ 1일 최소 1시간, 루틴 유지가 성패 가름 | ✗ Resume를 일반 Job 이력서처럼 쓰지 말 것 |



'25-'26 Top MBA 트렌드

1

불확실성의 시대

"국제정세 + 산업 격변기, 역량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"

- Geopolitical instability, Tech 산업 구조조정, AI 확산
- 'Resilience, Collaboration, Agility' 같은 내면 역량 기반 리더십에 더 주목

✓ 지금은 '실패 없는 이력서'보다 '회복탄력성 리더십의 서사'가 강한 스토리

2

International 관심도 정체

"유학생 포지션 변화의 바람"

-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미국 유학생 수요, '24-'25경쟁을 심화양상
- BUT 트럼프 취임 후 이민 정책 불확실성, 경제 이슈로 미국 내 유학생 지원자 관심 감소 체감

→ TOP학교들은 다시 국제학생 'Fit + Yield' 확보에 민감

✓ 톱스쿨 합격 가능성 증가 구간으로 지금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

3

새로운 경쟁 무대

"미국 너머 유럽·싱가포르가 뜨고 있다"

- INSEAD, LBS, NUS 등은 유연한 일정 + 네트워크 + ROI로 주목
-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위치 + 리크루팅 + 영주권/취업 여건 측면 유리

✓ 미국 vs 유럽/아시아 옵션을 병렬 설계하는 트렌드로 유럽/아시아 경쟁률이 높아질 것 예상 → 포트폴리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

2025-26 시즌은 '불확실성'과 '다양화'가 키워드입니다.
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, 다각화된 지원 포트폴리오로
전략적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



AI,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

"AI는 금지사항이 아니라, 전략적 도구입니다.
다만 '어떻게 쓰느냐'가 성패를 가릅니다."

1

학교들, AI 수용은 하되 선별적으로 하는 중

대부분의 Top School들은 ChatGPT 등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원서에 "AI Detection Tool"을 별도로 쓰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나, 표절·복붙·부자연스러운 언어는 플래그 대상이 됩니다. 중요한 건 진정성

✓ AI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, 바르게 활용하라는 메시지가 많아지는 추세

2

AI를 '전략적 조력자'로 쓴 사람 vs '대행'한 사람의 차이

성공 사례:

- 아이디어 확장에 활용
- 초안 구성 피드백, 구조 정리, 상세 표현 교정 등 전략적 부분 보조

실패 사례:

- 통째로 에세이 부분을 맡기고 복사/붙여넣기
- 누구나 비슷하게 들리는 언어, 논리, 문장, 디테일한 표현 중복

✗ "Same-sounding essay risk"는 오히려 AI 사용이 많아지면서 커짐

3

"구조화는 AI에게, '내용'은 사람에게"

AI는 구조 잡는 데는 유용하지만, 사실, 경험, 디테일, 관찰, 감정은 겪은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건 Narrative Angle: 당신의 여정, 변화, 선택의 배경은 반드시 '사람의 시선'으로 설계해야 합니다.

✓ 당신이 설계하고, AI는 똑똑한 동료이자 도구로만 활용하세요.

결국, '사람'의 전략이 차이를 만듭니다

AI는 훌륭한 도우미지만, 판단과 우선순위는 경험자의 안내가 필요합니다. 같은 커리어여도 "어떤 angle이 통하는지"는 여러 케이스를 직접 본 경험자만 알 수 있습니다. AI는 정보를, 코치는 방향을 잡아줍니다.



자주 받는 질문 (FAQ)

▶ 제 SNS(소셜미디어)도 확인하나요?

네 그럴 수 있습니다. 일부 학교는 지원자의 공개 프로필에서 리스크나 이미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. 온라인에서의 전문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.

▶ 학점이 낮거나 경력에 공백, 잦은 이직이 있어도 괜찮을까요?

에세이에서 그 배경을 간결하게 설명하고, 배운 점과 성장 과정을 담아야 합니다. GMAT/GRE 고득점이나 보충 학업 성적이 좋다면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▶ 추천서는 누가 써줘야 하나요?

당신의 리더십, 영향력, 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. 직속 상사가 어렵다면 프로젝트 리더, 클라이언트, 주요 파트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. Peer 보다 상사나 평가자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.

▶ GMAT/GRE 점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?

중요합니다. 시험 점수는 전 세계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비교 기준입니다. 원하는 학교 평균 이하라면 재응시를 고려하세요. 여러 번 응시한 이력은 성실성과 목표의식을 보여줍니다. 다만, GMAT Waiver나 EA를 받는 학교에 오픈이라면 Waiver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.

▶ 입학 설명회(Admission Events) 참석이 정말 의미 있나요?

그렇습니다. 많은 학교에서 참석 여부와 참여 태도를 내부적으로 기록합니다. 전공 트랙 등에 대해 미리 구체적 질문을 준비하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

▶ 'FIT'과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?

웹사이트를 넘어서 실제 재학생/졸업생 및 입학처와 소통해보세요. 그 학교의 문화, 자원, 동문들과 당신의 스토리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▶ 지금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, 더 준비하고 다음에 할까요?

점수를 크게 높이거나 경력 성과가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, 다음 라운드나 다음 사이클을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준비 미완 상태에서 Round 3만 가능한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입시 그 너머까지 함께하는 코칭



LIBERABBIT

Why Liberabbit?

Liberabbit 박지현 대표코치 약력

- Harvard 경제학 학사, 심리학 부전공
- Stanford MBA/M.Ed., 경영학 교육학 복수전공석사
- Wharton Executive Ed. Certification in HR
- 前 Google Advertising Operations Strategist
- 前 Amazon Pathway Operations Manager
- 前 Samsung Electronics 북미 신사업 투자 사장실 및 북미 반도체 HR Head Chief of Staff
- 前 Heidrick & Struggles Executive Search 시니어매니저
- 前 Boyd & Moore Executive Search, Technology 부문장
- 現 LIBERABBIT 대표 (KAC 인증코치)



"입시만으로 끝나는 코칭이 아닙니다.

합격 후 고민에도, 커리어에서도, 당신의 성공까지 함께 가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."



10년+ 실전 경력

글로벌 테크 회사, Top Program
졸업자의 직접적 경험과 네트워크



커리어 연계 전략

MBA 이후 커리어까지
고려한 Narrative 설계



Bilingual Expertise

한국어 & 영어 모두 구사 가능



HR & 헤드헌팅 경험

글로벌 인사와 고위 임원 리쿠르팅 경험으로 채용 시장 이해



전문적 Fit 커스텀 매칭

상세한 지원자에 대한 분석을
통한 커스텀 전략 수립



Boutique-Level Care

클라이언트 개개인에게 대표가
밀착으로 1:1 맞춤 케어

30분 전략 상담 받기

지원 타이밍, 학교 선택, 커리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

[무료상담 신청하기](#)